시리즈 개요

타이틀: 35. 엘라스티코 EL A STICO

생성연도: 2005 년

고유번호: 35EAS

장소: 안양파빌리온 아카이브 서가

길이: 60.4 피트

배열: 001(작가 약력), 002(참고자료), 003(제안서), 004(과정) 순으로 배열

APAP

기록자: 정주영 | **기록일**: 2013 년 12 월 30 일

작가:

이탈리아와 한국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엘라스티코는 시모네 카레나 Simone Carena, 스테파노 푸야티 Stefano Pujatti, 알베르토 델 마스키오 Alberto Del Maschio 가 1995 년 이탈리아 토리노에 설립한 건축/디자인 스튜디오다. 2002 년 엘라스티코의 한국 활동을 주도했던 시모네 카레나가 마르코 부르노 Marco Bruno 와 함께 서울에 건축/디자인 스튜디오 '모토엘라스티코 MOTOElastico'를 설립하면서, 엘라스티코의 한국 활동은 자연스럽게 모토엘라스티코로 이전되었다. 이탈리아어로 '탄력적인 움직임'을 뜻하는 모토엘라스티코는 지역문화에 뿌리를 둔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디자인 철학으로 삼고 있다. 시모네 카레나와 마르코 부르노는 토리노 폴리테크닉 대학교 Torino Polytechnic University 와 로스앤젤레스 SCI-ARC 를 졸업했으며, 각각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과 한양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

중이다. <2010 서울디자인한마당>(잠실종합운동장, 2010), <신호탄>(국립현대미술관, 2009), <광주디자인비엔날레>(2009) 등의 전시에 참여한 바 있다.

작품:

엘라스티코는 1 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(이하 APAP)의 초대를 받아 지중해에 서식하는 대왕오징어에서 모티브를 얻은 <아르키테우티스(오징어정거장>을 제작했다. 안양예술공원 입구에서 버스 정거장과 이용객들의 쉼터로 기능했던 이 작품은 삼성천에서 물고기가 튀어올라 예술공원을 방문한 사람들을 환영하며 안내한다는 상상에서 시작되었다. 작가는 예술공원 이용객들이 해산물 요리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,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바다의 존재를 실감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고자 했다. 오징어의 모습을 하고 있어 오징어 정거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던 이 작품은 버스 정거장이 이전되고 이용자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면서 전면적인 재 디자인작업에 들어갔으나, 2014 년 3 월 작가의 동의 하에 철거되었다. 우리는 이 구조물을 대왕 오징어의 학명인 아르키테우티스로 기억하기로 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로 남겨둔다.

APAP

범위와 내용:

'프로젝트 아카이브—1 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시리즈 35. 엘라스티코 EL A STICO'는 <아르키테우티스(오징어정거장>의 제작과 관련한 문서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아카이브 소장자료이다. 본 소장자료는 1 회 APAP 의 초대작가로서 엘라스티코가 작품 제작을 위해 제공한 3D 모델링 이미지와 작가 약력 및 이전 작품 이미지를 포함하며 그 목록을 아래와 같다. 또한 기획자와 작가가 주고 받은 이메일 등 안양공공예술재단이 작품 제작과 관련해 생성한 기록 사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목록화할 예정이다. 작품의 사진 데이터는 '프로젝트 아카이브 콜렉션—전자파일'에 별도 소장하고 있다.

자료목록:

번호 문서건명

001.01 엘라스티코 작가 약력(총 6 매): 영문

002.01 참고자료: 이전 작품 이미지

002.02 참고자료: 이전 작품 이미지

002.03 참고자료: 이전 작품 이미지

004.01 과정: 스케치(작성자 불명)

004.02 과정: 스케치(작성자 불명)

004.03 과정: 3D 모델링 이미지

004.04 과정: 3D 모델링 이미지

APAP